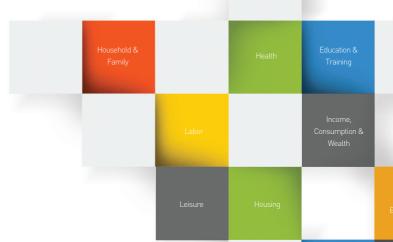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최근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정체된 반면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최근 고소득계층으로의 계층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 연령집단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문직의 상대적 소득은 상승하고 있고 관리직의 상대적 소득은 하락하고 있다.
- 최근 소득의 구성에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의 개선으로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의 개선에 따라 의류·신발, 교육,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의 소비가 회복된 반면, 오락·문화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최근 40대 이하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한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최근 3년간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까지이다(소득 기준 2011~2020년).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연간자료 및 분기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소비에 미친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 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 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화하여 사용하였다.







기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여기에서는 가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¹⁾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최근 가구의 실질시장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7년 2.9%에서 경제성장이 낮아짐에 따라 2018년 1.5%, 2019년 2.0%로 둔화되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W-1]은 각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얼마나중가했는지 보여준다. 이는 매년 각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연도별로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1)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전체표본의 균등화소득을 기초로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고, 가구가중치는 균등화를 감안하면서 각 연도 기준으로 하였다.

3) 소득분위별 가구 구성이 매년 바뀌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VI-1]을 보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소득 2분위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큰 등락없이 완만한 하락 추이를 보였다. 이 기간 소득 2분위 이상 가구는 각각 2.2%, 2.5%, 2.5%, 2.6%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각 1.2%, 1.1%, 0.5%, 1.4%로 하락하였다.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 평균 0.3%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3.1%로 급등했다. 이는 2019년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근로소득의 감소 이후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으로 풀이된다.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시장소득 증가율, 2012-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 실질시장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 조가유이

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지난 10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WI-1〉에는 전체 가구의 평 균 소득을 100으로 놓고, 각 소득분위의 소득 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각 가구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20년 동안 전체 평균소득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9.7%이고 5분위 소득비는 209.1%이다. 2011~2020년 동안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011년 221.4%에서 2020년 199.8%로 감소하였다.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20

					(%)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6.6	55.5	81.5	114.9	221.4
2012	27.1	56.2	82.2	114.6	219.9
2013	27.9	58.0	84.2	116.0	214.0
2014	28.6	58.7	85.0	117.4	210.4
2015	29.8	59.8	85.9	119.1	205.6
2016	29.7	59.6	85.7	117.6	207.3
2017	29.8	59.8	85.2	117.9	207.2
2018	31.1	8.06	86.1	118.4	203.6
2019	32.3	61.7	86.7	117.4	201.9
2020	34.2	62.5	86.9	116.6	199.8
2011-2020 평균	29.7	59.3	85.0	117.0	2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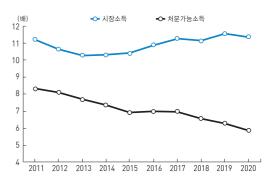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Ⅵ-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의

소득 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2013년 10.3배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1.3배, 2020년 11.4배를 기록하였다. 기술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고령화의 심화, 맞벌이소득 가구비중의 증가 등이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 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5.9배를 기록하였다. 2017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정체된 반면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이 관찰된다.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²⁾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소득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⁴⁾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여 정의된다.

²⁾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구가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W-2〉는 균등화 시장소득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행렬을 보여준다.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2012년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가구가 그 다음해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5 그 아래는 동일한 분석을 2019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은 다음 해에 40% 이상이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한다. 2019년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2, 3, 4분위 소득계층 간의 이동성은 다소 높아진 반면, 최고소득층으로의 이동성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에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표 Ⅵ-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2, 2019

		(S 2013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년							
1분위	81.7	13.2	3.6	1.0	0.6		
2분위	19.8	52.2	19.7	6.4	2.0		
3분위	5.0	20.0	49.4	20.4	5.2		
4분위	2.4	6.7	20.6	53.5	16.8		
5분위	1.3	2.1	4.5	16.1	76.0		

					(%)
			2020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9년					
1분위	82.1	13.4	3.2	1.0	0.3
2분위	22.6	50.2	21.1	4.9	1.2
3분위	6.4	22.7	46.7	21.0	3.2
4분위	2.4	7.9	20.3	53.2	16.2
5분위	1.2	1.2	3.5	13.5	80.6

주: 1)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게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 득이다.⁶⁾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원들의 소득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특성집단 간 맞벌이 가구 비율 및 1인가구 비율의 차이와 변

⁵⁾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체가구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 이동성 측정을 위해서는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전년도

²⁾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2년 소득분위에서 2013년 소득분위 의 이동확률과 2019년 소득분위에서 2020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 응 추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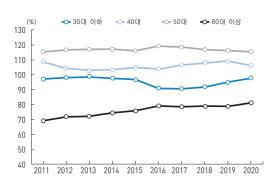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⁶⁾ 경상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처분가능소득과 유사하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지출을 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VI-3]은 2011~2020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으며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최근 2016년에서 2020년 기간에 각 연령집단별 소득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30대 이하는 90.7%에서 97.8%로, 40대는 103.9%에서 106.4%로 유의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19.3%에서 115.5%로 하락하였고, 60대 이상은 79.2%에서 81.3%로 다소 상승하였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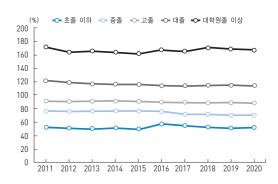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 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 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VI-4]는 전 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 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6년과 2020년 사 이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의 소득비 는 감소한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의 소득비는 증가했다. 초졸 이하 집단은 56.4%에서 51.1% 로, 중졸 집단은 75.2%에서 70.1%로, 고졸 집단은 88.8%에서 87.7%로 꾸준히 낮아졌다. 반면, 고학력 대졸 집단 소득비가 2016년 113.2%에서 2019년 114.2%로 상승하다가 2020년 113 2%로 하락하였고. 대학원졸 이 상 집단은 2016년 166.3%에서 2018년 170.0%로 다소 상승하다가 2020년 166.3% 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림 Ⅵ-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 구소득 대비 해당 학력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7)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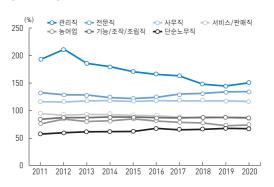
이처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집단의 소득비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집단의 소득비는 유지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고학력집단은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동시장에서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VI-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 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의 기간에 전문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은 하락하였고 단순노무직과 기능조작/조립직은 유지되었다. 전문직의 경우 2016년 125,3%에서 2020년 134,7%로 소득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은 신기술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기간 동안 관리직의 소득비는 166.5%에서 150.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관리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 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3.1%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64.7%,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9.9%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그림 Ⅵ-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대상 가구 전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직업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6~2019년 동안 1인가구의 20대 이하, 30 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20대,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2019년 5.8%, 10.0%, 10.8%에서 2020년 7.1%, 11.9%, 11.5%로 다소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58.2%에서 54.1%로 감소했다. 한편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1인가구의 고령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다.

2016년 이후 50대 이하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그 중 20대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9.4%에서 70.1%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16년 56.3%에서 등락을 하다가 2020년 59.1%로 증가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1인가구 소득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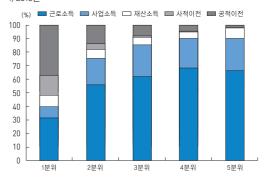
거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의 원천은 다양한데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경상소득 과 그 외의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 은 다시 가족 간 이전,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 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 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여 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 한다. 2016년과 2020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 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에서 62.9%로 정체된 반면 사업소득은 22.2%에서 18.5%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소득은 6.5%에서 7.1%로.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6.0%에 서 2019년 7.7%로 그리고 더 나아가 2020년 9.8%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연금 및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이 증가한 점과 공 적이전이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와 코로나19로 강화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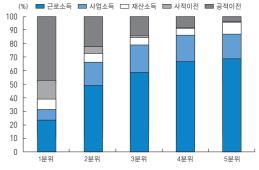
[그림 VI-6]에 제시된 2020년 기준 소득분위 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3.7%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6.8%와 68.8%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비중이 하락했다.

[그림 Ⅵ-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20

1) 2016년



2) 2020년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1.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016년 37.0%에서 2019년 42.8%, 그리고 2020년 47.1% 로 유의하게 증가한데 비해 5분위는 같은 기간 에 2.2%에서 2.5% 그리고 3.7%로 완만하게 증가 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원 이 저소득층 소득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Ⅵ─3》의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20대 이하, 30대에 비해서 40대 이상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다.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상당수가 은퇴 시점을 넘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87.6%에서 73.3%로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6.4%에서 18.3%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소득원천별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구별되며 20대 이하 가구의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전 연령대서 증가했는데 그중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20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2016년					
20대 이하	87.6	6.4	1.2	2.8	2.0
30대	78.9	16.0	2.2	0.7	2.2
40대	70.1	24.0	3.6	0.6	1.8
50대	66.1	25.5	5.8	0.5	2.1
60대 이상	40.1	20.2	14.7	4.6	20.4
2020년					
20대 이하	73.3	18.3	1.1	1.9	5.5
30대	76.9	13.0	4.0	8.0	5.3
40대	69.8	21.1	4.0	0.6	4.4
50대	69.7	19.3	5.8	0.6	4.6
60대 이상	41.5	17.9	13.2	4.1	23.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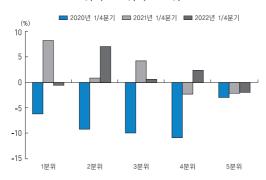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1,

기구 소비지층의 변화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에 따른 소비충격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에게 어떤 지출패턴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연도 1분기의 실질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1 분기에 -7.4% 급감했고 2021년, 2022년 동분기 까지 점차 0.2%, 0.8%로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그림 VI-7]을 보면 2020년 1분기에 소득 2분위.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각각 −9.2%, −10.0%, −10.9%로 크게 감소한 반면 1분위와 5 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4분위 이하 가구의 소비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증 가율 회복세가 강하였고, 5분위 가구는 소비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보인다. 최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로 소비해 온 이유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Ⅵ-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 2021.1/4, 20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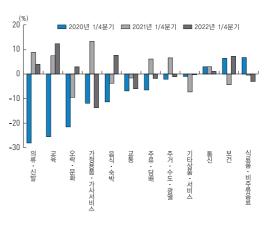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그림 W-8]에서 평균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0년 초에는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의류·신발, 교육,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이 초기에 가장큰 타격을 받았다. 2021년 1분기를 지나면서의류·신발, 교육,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오락·문화에 대한 소

비는 회복속도가 더딘 편이다. 식료품·비주류음 료와 보건은 반대로 코로나19 초기에 증가하였 으나 최근에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에 시행된 거리두기 정 책이 그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완 화되면서 소비가 정상을 되찾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림 Ⅵ-8]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 2021,1/4, 2022,1/4



주: 1) 전국 1인 이상 기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 별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21년까지 연간자료가 이용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소비지출 구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Ⅵ-9]는 연간 명목자료를 이용하여 전 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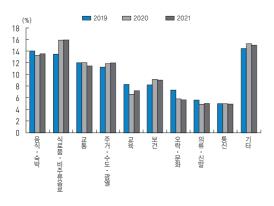






보여주고 각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여준다.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교육 지출 비중이 8.3%에서 7.3%로, 오락·문화는 7.3%에서 5.7%로, 음식·숙박은 14.1%에서 13.5%로 낮아졌다.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5%에서 15.9%로, 보건은 8.2%에서 9.1%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대면 서비스 위주로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재택 관련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9-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은 비중이 감소한 반

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은 그 비중이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교통, 40대에서는 교육,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의식주 지출 비중은 2019년 30.4%에서 2021년 32.9%로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하게증가했다.

기구 비소비지율의 변호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Ⅵ-4〉를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 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 율)은 2016년 17.5%에서 2020년 18.3%로 다 소 증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 금 그리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의 합 이 2016년 11.2%에서 2020년 12.2%로 증가 한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분 위가 2.1%, 3분위가 2.5%, 4분위가 3.6%, 5 분위가 9.6%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률이 누진적으로 높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020년의 조세부담률은 4분위 이상 소득계층 에서 유의하게 증가해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 비중 또한 4 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 유의한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다.

〈표 Ⅵ-4〉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6, 2020

				비지출		(%)
-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6년						
전체	17.5	5.6	5.6	1.9	1.3	3.1
1분위	13.3	1.9	4.0	2.1	1.6	3.7
2분위	14.6	2.1	5.2	2.2	1.4	3.7
3분위	15.6	2.6	6.0	2.0	1.3	3.7
4분위	15.6	3.2	6.2	1.8	1.2	3.2
5분위	20.0	8.8	5.4	1.8	1.2	2.7
2020년						
전체	18.3	6.0	6.2	2.2	8.0	3.2
1분위	11.2	1.8	3.2	2.7	0.7	2.9
2분위	14.3	2.1	5.1	2.8	0.8	3.5
3분위	15.2	2.5	6.1	2.3	0.7	3.5
4분위	16.8	3.6	6.9	2.1	0.7	3.5
5분위	21.7	9.6	6.4	2.0	0.8	2.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구지사의 변화

마지막으로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1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63.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7년 63.5%와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2.4%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8.8%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

된 것이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 각 전체 부채의 24.9%와 44.7%를 차지하고 있 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43.7%로 2017년 129.6%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는 151.2%에서 135.6%로 하락했으며, 2분위는 144.1%에서 150.5%, 3분위는 141.0%에서 148.4%로 다소 증가했다. 4분위는 132.0%에서 149.4%로, 5분위는 120.0%에서 138.5%로 크게 증가했다. 대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20.7%로 2017년 18.7%에서 부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했다.

가구주의 연령집단별로 보면, 2021년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20대 이하는 56.1%로 낮은 편이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78.8%와 76.6%로 매우 높다. 다시 50대는 72.8%로 낮아지고 60대이상에는 46.4%로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에 따른 주택구입과 주택담보대출 행태와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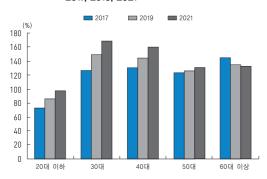
한편 [그림 VI-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2021년 동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대이하, 30대, 40대에서 크게 상승하였고 50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 20대 이하, 30대, 40대의 부채증가율은 각각 48.3%, 61.7%, 41.3%로 상당히높은 편이었다.







[그림 VI-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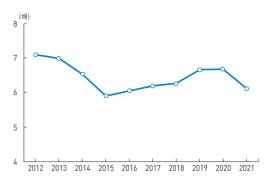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대비 부채 비율-총 부채액÷연간 경상소득. 출차: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2020년 동안 14.9% 증가하였는데 2020~2021년에만 14.2%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 순자산 증가율은 31.3%에 달하며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21년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7.1%이고 5분위는 43.5%이다.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분위 대비 5분 위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5년 5.9배에서 2020

[그림 Ⅵ-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년 6.7배까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 년 6.1배로 다시 낮아졌다. 순자산 배율의 등락추세는 부동산가격의 변화패턴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소득 1분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11.0% 증가한 반면, 5분위에서는 22.8%로 크게 증가하여 순자산 배율이 높아졌다. 반면, 2020~2021년 기간에는 각각 21.6%, 14.6% 증가하여 순자산 배율이 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